

컨설팅학과 이야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성과평가 1위 달성



한양대학교의 모든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성과평가에서 지식서비스연구소가 인문사회계열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09년 최초 개설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식서비스 기반의 경영 혁신과 성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연구소, 피플 컴퍼니 MOU 체결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는 프리랜서 케어플랫폼 전문 기업 '피플컴퍼니'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프리워커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연금 저축계획 등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재무/세무/법률적 도움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특강, 가이드북 제공 등을 통해 출시 6개월만에 150여명 이상의 프리랜서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와 피플컴퍼니는 이번 MOU를 통해 다양한 지식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확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을 상호 협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구 모임 비즈빅, 2021 LINC+ 사업단 자율학습동아리(SSG) 선정



저희 경영컨설팅학과에서는 지난 1월부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소규모 연구모임 "비즈니스 빅데이터 연구모임: 비즈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팀장으로, 경상대학 학부생들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빅데이터 연구모임: 비즈빅"이 2021년 LINC+사업단 자율학습동아리 프로그램(SSG)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비즈빅은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비즈니스 빅데이터를 머신러닝과 인공지능망 등 기술을 적용해 분석하고 기업이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이 아닌 비즈니스적 가치 개발과 활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비즈빅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명미 석사(2015년 2월 졸업생) 인터뷰

경영컨설팅학과 15년도 2월 졸업생인 김명미 석사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졸업생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 2월 석사 졸업생 김명미 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한영회계법인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졸업 후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외국계 회계법인 경영지원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인만큼 법인 내 임직원들을 위한 업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는 임직원 경조사 지원 및 일반구매관리, 법인서류 및 감사보고서 관리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만큼 임직원분들의 법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행하고 있는 공부 분야가 있으신가요?

외국계 법인이다 보니 글로벌 규정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영컨설팅 기업은 모두 변화가 많고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구매 관련 업무입니다. 법인 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매업무를 위하여 글로벌 규정과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공부하며 실무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실무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없으셨나요?

백동현 교수님의 프로젝트 관리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일반회사의 경영지원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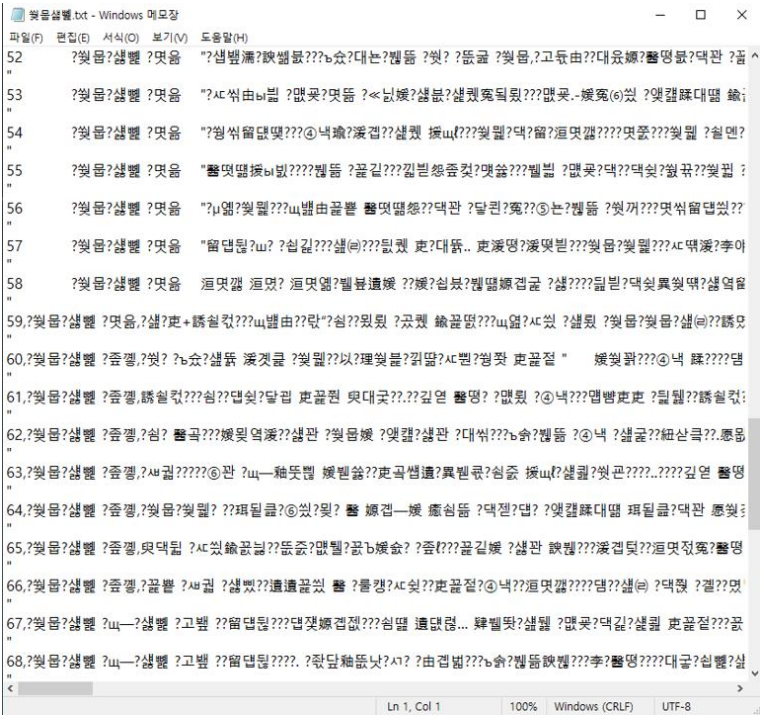
5.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에서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다양한 경력과 삶의 경험을 갖고 모인 동기 및 선배 원우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우님들 간의 만남이 어려워졌지만,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하고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딥러닝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의 한글 깨짐



경영 컨설팅 학과에도 고객 리뷰에 담겨있는 정적 감성과 부정적 감성을 발굴해내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이나, 코퍼스 내의 주제들을 분류하는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진과 같은 깨진 글자를 보고 좌절합니다. 다양한 한글형태소 분석기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한글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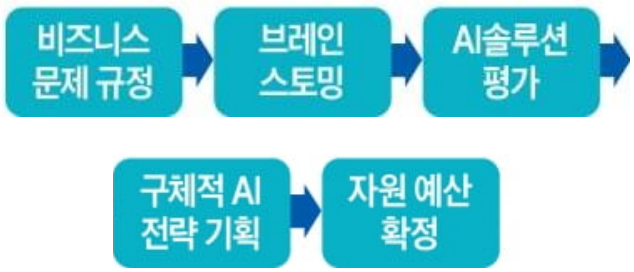


AI 도입은 기술적 성과보다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먼저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은, 결국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경영컨설팅학과는 기술을 활용한 수익모델 창출과 응용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응(Andrew Ng) 미스탤퍼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를 이끈 인물로 유명합니다. 구글과 바이두에서 일했으며 2017년에는 랜딩 AI라는 벤처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안르쿤 뉴욕대 교수,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등과 함께 AI 4대 천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세계 10만명에게 머신러닝을 무료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응 교수는 무엇보다 기업이 기술주도적으로 AI를 연구할 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고객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AI 도입 5단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응의 5단계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다.

앤드루 응의 비즈니스 AI 도입 5단계



‘갑질’과 ‘을질’, 회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사내 폭언과 해당 검사의 자살, 2018년 서울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및 자살, 2018년 한 웹하드 업체 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6일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소위 ‘갑’과 ‘을’ 모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정 법률 때문에 새로운 골치가 생겼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법의 괴롭힘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주요 산업 노동자 1000명중 71.8%가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감소 또는 매우 감소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0%, 6.8%에 불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현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효과가 미미한 데는 괴롭힘 자체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 시행 1년 후인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주로 갑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을질’이 생겨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즉, ‘을’에 해당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법을 지렛대로 삼아 정당한 업무 지시나 조언까지도 괴롭힘이라고 신고해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는 주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극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컨설팅학과 이야기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후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안내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후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이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0일 (월) 10시부터 5월 13일(목) 17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도착 기간은 5월 10일(월) 10시부터 5월 14일(금) 17시까지 입니다. 한양대학교(서울) 신본관314호 대학원교학팀으로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면접 시험은 6월 5일(토) 9시 30분 부터 각 학과별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지사항의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모집 기간: 05/10 ~ 05/13 | 학석사 통합 모집 기간: 06/08 ~ 06/11

연구소 및 대학원 5월 일정

	내용	비고
4/27(화)	1학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HY-in
5/10 (월) ~ 5/13(목)	2020학년도 후기 신입학 특별전형 원서접수	대학원 홈페이지
5/13(목) ~ 6/3(목)	신입생 지도교수 배정	-



[End of Document]